상한제·원가공개 없인 뛰는 분양가 못 잡는다

아파트의 공습 대책없는 광주

〈3〉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해야

건설사 자율 결정 연일 최고가
3.3㎡당 2375만원 아파트 등장
광주 상승률 전국서 가장 높아
주택법 개정前 보증 규제 필요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데도 지방자치단체는 멀뚱히 지켜보고 있었다.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래도 너무한다 싶었던지 광주 서구는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를 재검토해 달라"고 건설사에 협조 요청이라도 했다. 반면, 남구는 건설사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해줬다. 남구 관계자는 "권고(재검토 요청) 안 한다. 분양가 통보하면 바로 공고해준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에게는 분통 터질 답변이다.

이 때문인지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최고가는 한 달 새 3번이나 경신됐다. 분양가 고공행진은 5월24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로 시작됐다. 광주 평균 분양가가 3.3㎡당 1160만원인데, 이 아파트는 3.3㎡당 무려 472만원이 높은 1632만원에 공급했다. 일주일 뒤 5월 말에는 인근 농성동 '빌리브 트레비체'가 3.3㎡당 2367만원에 분양했고, 3주 뒤 지난 21일에는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엠브이지'가 이보다 높은 2375만원에 내놨다.

2017년말 기준 광주의 1인당 총소득(GNI)은 2637만5000원이다. 광주시민이 이 아파트(40평)를 분양받으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꼬박 36년 간 모아야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법은 단호했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분양원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검증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아파트)을 분양할 때 택지비(땅값)와 정부가 정한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분양가 이하로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이하로 억제하는 제도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지난 2007년 참여정부에서 도입됐지만, 2014년말 박근혜정부가 폐지했다. 이후 모든 민간아파트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공부문 원가공개 확대로 공공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이 투명해지고 거품 차단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확대와 과거치 원가 공개, 설계내역 및 원하도급내역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할때 부동산 광풍이 잡히고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주택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까닭에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장 해야 할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올리는 건설사에게는 보증을 서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HUG의 보증 없이는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월말 기준 3.3㎡당 1160만원이다. 전달(1093만원)보다 67만원 오르며 11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5월말 959만원보다는 무려 20.9% 상승했다. 전국 최고 상승률로, 서울(12.5%)보다 무려 8.4%포인트 높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는 데도 광주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광주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이 광주 아파트 분양가를 단시간에 비정상으로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절실하고, 단기적으로는 HUG의 보증 관리를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26.33 (+0.71)	금리 (국고채 3년)	1.44 (0.00)
↓ 코스닥	717.69 (-4.95)	↓ 환율 (USD)	1156.50 (-7.50)

대학생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네이버'

인크루트 929명 설문조사
2위 CJ ENM, 3위 삼성전자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로 '네이버'가 꼽혔다.

24일 취업정보사이트 인크루트가 지난 5~18일 전국 대학생 929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네이버가 7.4%의 득표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121개 기업 가운데 1위에는 네이버가 올랐고 2위 CJ ENM(7.2%), 3위 삼성전자(6.2%), 4위 SK하이닉스(4.4%), 5위 대한항공(4.3%), 6위 CJ제일제당(4.2%), 7위 아모레퍼시픽(3.6%), 8위 포스코(3.4%), 9위 현대자동차(3.3%), 10위 호텔신라(3.0%)가 뒤를 이었다.

네이버는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1위를 거머쥔 이후 올해 세 번째 1위에 다시 올랐다. 네이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성장, 개발 가능성과 비전'(24.2%)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 성비는 남자(32.8%)보다 여자(67.2%)가 두 배 높았다.

CJ ENM은 네이버와 0.2% 차이로 2위를 차지했고, 인크루트가 200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를 제쳤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공동 3위에 이어 올해 역시 3위에 꼽혔다.

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고 대한항공은 3년 만에 10위 안에 들었다. 기업 선호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뚜렷했다. 남학생은 삼성전자(9.2%)·SK하이닉스(6.0%)·네이버(6.0%)·포스코(5.2%) 등을 많이 꼽았고 여학생은 CJ ENM(10.2%)·네이버(8.4%)·CJ제일제당(5.3%)·아모레퍼시픽(5.1%) 등을 골랐다.

기업을 고른 이유로는 '관심업종이기 때문에'(21.1%)가 가장 많았고 ▲우수한 복리후생(15.5%) ▲성장, 개발 가능성과 비전(14.0%) ▲동종업계와 지역사회에서 선도기업의 이미지(13.5%) ▲만족스러운 급여와 투명하고 공평한 보상제도(11.2%)가 이어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 모임 '광은프론티어 멤버스' 창립총회

30~40대 젊은 CEO 50명
회칙 제정하고 회장단 선임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4일 오전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광은프론티어 멤버스'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은프론티어 멤버스는 각 사업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30~40대로 구성된 우리지역 젊은 CEO들의 모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다 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은프론티어 멤버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칙제정과 회장단 선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과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주요 내용으로 2019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프로복서에서 세계적인 성악가로 인생역전에 성공한 동양의 파바로티 조용갑 테너를 초청해 '희망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지며 삶의 변화를 위한 도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광주지역 30~40대 젊은 CEO로 구성된 '광은프론티어 멤버스' 창립총회가 24일 열렸다.

이날 총회결의를 통해 광은프론티어 멤버스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조영훈(대광건영㈜) 대표는 "전도유망한 젊은 CEO로 구성된 광은프론티어 멤버스는 지역금융의 허브인 광주은행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상생과 화합,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우리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과 광주은행의 굳건한 동반체계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젊은 CEO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패기있는 도전에 든든한 후원자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중소기업 10곳 중 8곳
"하반기 투자 확대 없다"

중소기업 86%가 올해 하반기 투자 확대나 신사업 진출 계획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3.6%만이 "하반기 투자확대나 신사업·신기술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86.4%는 투자나 신사업 진출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 같은 소극적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 51.2%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영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11.0%)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매출(49.2%), 영업이익(48.8%), 자금조달(45.8%) 순으로 경영상황이 가장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경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사안으로는 응답 기업 51.6%가 최저임금 급등 영향으로 인한 위험을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위험을 꼽은 비율도 38.4%에 달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김광호 광주세관장 지역기업 수출 애로 청취

첨단산단 '링크옵틱스' 방문…광의료기기 수출 지원 약속

김광호〈오른쪽〉 광주본부세관장은 24일 첨단산업단지 소재 광산업분야를 기반으로 한 광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 ㈜링크옵틱스(대표 최용원)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링크옵틱스는 광(光)을 이용한 황노화 솔루션 첨단기술 보유를 통한 LED 피부치료기 벨라룩스, LED 유세포분석기 등을 제조하는 광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광주시 프리명품강소기업 선정과 모범 중소기업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이다.

이날 업체 관계자는 LED 유세포분석기 국산화 성공으로 호주, 말레이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에 가격경쟁력이 있는 만큼, 자사의 제품이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김광호 세관장은 "FTA활용, 수출입통관 등 관세행정상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수출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수출유망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무색료 무감미료 무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